

## 고뇌(苦惱)와 번뇌(煩惱)

## Distress and Agony

박세진 / 박세진건축사사무소  
by Park Se-Jin

필자는 오늘이 있기까지 인내와 고뇌(苦惱) 그리고 희열을 느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86년 미국인으로부터 ti59 미니 computer를 선물로 받고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1971년 9월에 꿈에 그리던 건축사 면허 2급을 취득하고 10년 만에 1급 건축사를 그것도 전국에서 50명이 합격하였다. 그 동안 2급의 설움을 받아가면서 건축물의 창작과 예술을 겸비하면서 실력이 좋은 1급 건축사 면허가 없어서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1급 건축기사(지금의 시공기사)에 도전하여 1978년에 합격하였으나 학벌로 쓴잔을 들어야만 하였다.

재도전하여 1998년 5월 16일 1급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이었다. 날개 돋친 듯 기뻐하면서 창작 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이것도 역시 로비에 밀려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 황금 만능 시대에 접어들던 어느 날 부정 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다소나마 실력을 과시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다. 이때 필자는 선물 받은 computer를 활용하여 건축 설계 및 구조 계산 그리고 3D 설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였다. 이때부터였다.

실무 경험으로부터 얻은 구조에 따른 문제를 접하면서 4bit 의 자기 디스켓 (지금의 카드 뒷면에 붙은 것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986년경) 지금 생각하니 용량이 부족하여 수많은 고생도 하였다.

그러나 그 많은 건축 구조계산에 따른 이론과 실기 그리고 결과 치로는 서로가 믿지를 않아서 내 자신만의 소유를 하면서 실무에 접목시켰다. 그러던 중 더 좋은 일본산 shap computer를 접하면서 이때는 이미 8bit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basic 언어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하여 완성된 구조 프로그램으로 혼자만의 소유로 잘 활용하여 호황도 누렸다.

그런데 1988년 건축사 17명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연수과정에서 참가했을 때 캐드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3D 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마음으로 1989년 5월경에 cad를 도입하여 활용하여 강원도 아니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computer 투자가가 되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한글 폰트를 개발할 때였다.

그러던 중 8bit의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다. 또 다시 콧 버전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computer는 급속히 발전하여 16bit로 발전하므로 8bit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16bit에 따른 콧 버전을 시작하여 1992년에 이미 구조프로그램 다수를 등록을 마치고 있었다. 그 때는 computer 교육 기관이 없는 터라 독학으로 한 것이다.

이때는 이미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DB 구축을 한 프로그램과 구조프로그램을 다수 소유하면서 신속한 설계에서부터 내역까지 소화를 하여 좋은 날이 많았다.

드디어 16bit에 맞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1994년경),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개발하지 못한 곳까지 직접 개발에 착수하여 속속 활용에 자신을 얻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한파가 찾아왔다. 윈도우(1995년) 버전이 출시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드디어 윈도우가 출시되어 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환멸을 느끼게되어 이제는 DOS에서 만의 작업 완료를 강행하여 사용하였으나, 한글이

종합형에서 사용하던 터라 어찌하겠는가 국가에서 표준화한 완성형 한글 사용을 따라야만 하였다.

그런데 DB구축의 자원 데이터는 2,300여 종과 일위 대가표는 850여종의 한글 치환이 먹구름같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종합형에서 완성형 콤 버전 program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에 소유자가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래 전에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찾아 논의 끝에 삼보 컴퓨터에서 정보를 주어 입수한 프로그램으로 최종 정리를 하였다.

역경을 겪고 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을 산모의 고통을 사나이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집념을 갖고 뛰어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렇게 건축사로서 프로그래머로서 건축사들의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역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선 그 동안 심혈을 기울이게 된 동기를 몇 자 적고자 한다.

▷ 건축 구조를 접하면서 학창 시절에 스승님께서 기술을 모두 가르쳐주면 어른들은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이냐 라는 스승님의 말씀 되새기면서(1962년)

▷ 프로그램 개발 중 건축 구조의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지 적용에서 각종 공식 등에서 의문점에 따른 해결방법 등에서 얻은 것은 일본의 서적에서였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지만 일본 서적에서 잘못 인쇄된 공식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회신을 받고 고마워 했던 때도 있었다. 물론 일본에서 공식 유도까지 하여 필자에게 보내 주었던 것이다. 결과론에서 인쇄가 잘못 되었다는 사과에 감탄하였다.

▷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었다. 그 원인은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해! 하는 식의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고쳤으면 한다. (1991-1992년)

▷ 1965년 필자는 카뮈사에 근무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옛 속담에서와 같이 모르는 것 아는 것 모두 OO대학교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1993년도에는 적잖은 현금까지 전달하면서도 얻은 것은 없었다.

▷ 필자는 그때 교수님들 보다 더 좋은 기종의 computer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OO대학 교수를 만났다. 그때 그 교수는 프로그램을 일부 줄 터이니 필자의 computer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 OO대학 교수가 집필한 참고 도서도 틀린 곳이 여러 곳

있는 것도 보였다. 물론 교수님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였겠지만 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구조란 인명의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교육을 받는 학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 또는 구조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올바른 교재와 참고 도서가 되기 위해 도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께서는 문헌으로 남기시면 현세 사람들이 좋은 시 그리고 좋은 동요 또한 좋은 서적이라고 하듯이 후세에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 일부 교수들은 일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1990년경)을 하고 있었고, 우리 건축사들도 일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을 때였다. 또 몇 분은 고생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하라는 충고도 받곤 하였다.

▷ 일부 구조 기술사와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IMF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조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설계비와 비슷한 구조계산비를 요구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번뇌(煩惱)와 고뇌(苦惱)로 1989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 때 신경성으로 입원까지 하였다. 그러나 집념으로 프로그램의 에러를 꿈속에서 알려주어 다음날 바로 해결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현재는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려워진다. 이미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는 어찌할꼬, 컴퓨터는 날로 발전하는데 학술은 ..... 그때 또 콤 버전을 하여야 할 터인데!

▷ 인생은 人命靈時, 無空無許, 人存人造, 初動不停, 無浴無宿, 今生有存 此生無存, 自有黑無, 有生有想, 人生生 勞生樂이라 ....

▷ 이제는 .....

▷ 물론 필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검증을 받을까 생각도 하였으나 필자와 같이 신속히 검토하여 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하여 준다면 하더라도 200여종의 프로그램을 검증 받기란 적잖은 현금이 따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필자 자신만의 자신감과 또한 작금에는 수입한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포털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작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승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신지식의 전달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태어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못 먹고 살 정도면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옛 조상님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한글 등등 무엇인가 후세를 위하여 .....

▷ 학술은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예술은 묘한 자연 법칙을 탈피할 수 없다.  
 1) 나무 가지의 굵기와 나무 잎의 생성과 계절에 따른 생동감 휴면 시기 등등..  
 2) 철의 구조  
 3) 석재와 흙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삶은 흙으로  
 인간의 수분은 물로  
 인간의 뼈는 흙으로  
 인간의 혼은 한 것 바람으로 흠어지고 마는 것  
 ▷ 이제는 과육금물로 버릴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할 때이나 환갑의 나이가 넘으면 모두 알 것이다. 이미 넘으신 분은 후세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두고자 노력하십시오.  
 ▷ 기술자가 쉽게 사용하고 응용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 학자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여 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 까지도 원고 한번 못써본 교수님들 각성하시어 산 지식을 물려줍시다.  
 ▷ 기술자는 학자들의 이론을 응용하고 활용하여 인간 삶을 영위함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 인간 삶에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필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건축사들이 널리 쉽게 사용하여 인간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 건축사로서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고뇌와 번뇌 속에서도 만들어 놓은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 건축 구조 (RC 조) 일괄 프로그램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2. 건축 구조 (steel 조) 일괄 프로그램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3. 건축 적산 (일위대가 및 내역서작성)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4. 각종 트러스외 sub program .. 13여종 program 연결
5. 철골 구조 산형 라멘 sub program .. 11여종 program 연결
6. 건축물의 지진 및 풍 하중에 의한 구조 계산 60% 완료

위 프로그램들은 각종 기본 공식으로 개발한 것이다. 30년 건축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은 처와 자식 그

리고 현재 얻은 것은 나의 노력에 따른 고뇌와 번뇌뿐이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건축사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학문은 오래도록 갈 것이다.  
 건축물은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말인가.  
 금 은 보화도 햇볕을 보아야 아름답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누구 한사람 쳐다보지 않는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虛無)한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홀로 떠날 때 무어라 말할꼬  
 모두 버리고 버리면 되는데 이리 왜 힘드느고  
 혼자라면 무엇인들 못 할꼬  
 가족이 있기에 그 책임감에 잠 못 이루고 있네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항상 옆을 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건축사들을 말일세

정직한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솔직한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실력있는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돈의 노예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간략스러운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술수에 능한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명예 대여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우리 건축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 모두가 행복한걸 나만의 행복 추구, 나만의 부자, 나만의 왕자 모두 다 갈 때는 버리는 것을 우리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꼬... ㄷ